

# 언더라이팅과 위험관리 서비스 제고방안





글 | 김용달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장

화재보험의 요율 자율화가 시행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화재보험의 요율할인제도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언더라이팅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 1. 머리말

화재보험의 요율 자율화가 시행되고 보험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우량물건의 발굴과 인수를 확대하는 한편 불량물건의 인수방지를 위한 제반활동, 즉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할 물건에 대하여 과학적인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언더라이팅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언더라이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근본 경쟁력이며 이익 창출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언더라이팅 지원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위험관리 인력으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위험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안전 전문인력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는 전국 20,000여 건의 특수건물에 대한 언더라이팅 정보를 손해보험회사에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면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언더라이팅에 대한 이론적 개념 및 보험가입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화재보험의 요

율할인제도를 소개하며,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언더라이팅 정보와 위험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그 한계성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언더라이팅의 의의 및 중요성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란 위험을 인수하거나 거절하는 과정으로서 위험을 인수할 경우 보험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전에는 언더라이팅이 보험업의 운영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화된 기법이다. 언더라이팅의 기능에는 각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하며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험을 인수할 각 위험에 대한 담보범위 기준과 보유금액의 결정, 재보험금액과 재보험 방법을 정하는 등의 업무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특정 업종 또는 물건에 대하여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은 언더라이터가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것은 보험의 인수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자와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방재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소방법이나 안전법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방재시설이 미흡하고 관리가 부실한 불량물건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우량 물건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더라이팅의 이론적인 측면을 방재기술 및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위험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착안사항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더라이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고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6세기 초반 근대보험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에 보험을 전파한 사람이 이탈리아인[Lombard:상인]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보험용어에는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직

터들은 위험수준 및 자신의 담보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증거로 종이쪽지 아래에 인수금액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처럼 보험계약 인수시 보험중개인의 설명과 자신의 지식 및 경험을 종합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인수할 지 결정하는 것이 그 당시 언더라이터의 주요 행위였다. 하지만 최초 언더라이팅은 사고발생 확률에 근거한 위험선택이나 요율결정 등 과학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험중개인이 가져온 조건과 요율 하에서 계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이 '언더라이팅'이란 용어는 협의로는 보험 회사의 위험선택(Selection) 업무, 즉 위험평가의 체계

언더라이팅은 위험판단을 통한 인수여부의 결정, 인수조건 및 보험요율 산정, 보유금액 결정 및 재보험 방법 등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보험 사업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며, 언더라이팅 결과는 바로 경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역한 것이 많다.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영어로 Policy라 하는데 이 경우의 Policy는 「정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보험증권의 뜻을 지닌 「Polizza」의 영어식 표현이며, 보험료를 나타내는 「Premium」은 '최초에'라는 의미를 지닌 「Primo」에서 온 것이다. 또한 언더라이터(Underwriter)는 보험을 인수했다는 증거로서 보험증권의 「아랫부분에 서명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보험 발달초기에 보험중개인이 보험체결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보험목적물의 위험정도를 상세히 기입한 종이쪽지(Slip)를 들고 다니면서 언더라이터와 협상을 하였다. 인수의뢰를 받은 언더라이

터는 위험수준 및 자신의 담보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증거로 종이쪽지 아래에 인수금액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처럼 보험계약 인수시 보험중개인의 설명과 자신의 지식 및 경험을 종합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인수할 지 결정하는 것이 그 당시 언더라이터의 주요 행위였다. 하지만 최초 언더라이팅은 사고발생 확률에 근거한 위험선택이나 요율결정 등 과학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험중개인이 가져온 조건과 요율 하에서 계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이 '언더라이팅'이란 용어는 협의로는 보험 회사의 위험선택(Selection) 업무, 즉 위험평가의 체계화된 기법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보험계약의 모집과 정부부터 계약인수 및 처리,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즉 영업부서의 보험계약 모집, 업무부서의 계약에 대한 위험평가 및 선택, 재보험처리는 물론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언더라이팅이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언더라이팅은 위험판단을 통한 인수여부의 결정, 인수조건 및 보험요율 산정, 보유금액 결정 및 재보험 방법 등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보험 사업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며, 언더라이팅 결과는 바로 경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3. 화재보험 할인의 종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문화재보험은 해당 가입 대상 물건의 업종과 건물구조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요율에 할인 및 할증을 거쳐 최종 요율이 결정된다. 여기서 할인요율은 공지할인, 소화설비할인, 고액할인, 불연내장재할인, 특수건물할인, 주방 및 화상할인, 방화구획할인, 방위산업체할인, 우량물건할인 등이 있으며, 할증요율은 고층건물할증, 재고자산할증 등이 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의 최종 화재보험요율은 업종과 건물구조에 따른 기본요율을 결정한 후 해당되는 할인할증 요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재보험의 할인할증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물건들의 개별적인 위험도를 요율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험이 큰 물건에는 요율을 인상하고 위험이 적은 물건에는 요율을 할인하고자 함이다.

공지할인은 해당건물 주변의 대면건물간의 충분한 공지가 확보된 경우 상호간 연소확대 위험이 적으므로 10%의 요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화설비할인은 보험개발원장이 정한 “소화설비규정”에 의거, 소화설비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그 수용동산 및 기타 특히 정한 물건에 대하여 할인을 실시한다. 소화설비 할인검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최고 6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우량물건할인은 과거 수년간의 손해율이 양호한 물건 중 보험개발원장이 정하는 “우량물건 할인을 산출규정”에 적용되는 물건들에 해당된다. 이는 공장물건에만 해당되는 제도인데 동일공장 구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 과거 5년간의 화재보험 계약의 평균 손해율이 40%미만인 경우에 우량할인율 산출표의 적용점수에 따라 최고 25%까지 할인

이 가능하다.

특수건물할인이라 함은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발생 이후 대형화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시 사망자 1인당 최고 8,000만원의 사망보상금이 보험에서 지급된다. 이러한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보험요율의 업종에 따라 10% 내지 30%를 할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는 국문화재보험에는 주로 중소형 규모의 물건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 고액계약의 경우에는 해외 재보험자에게 요율을 개별적으로 직접 구득하여 결정하게 된다.





해의 재보험자에게 요율을 직접 구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엔지니어가 가입물건에 대한 현장실사 후 위험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물건의 업종에 따른 위험도, 건물의 구조와 방화구획의 상태, 소방시설의 상태, 공공 소방대와의 거리, 유류 및 가스 등 위험물질의 보유량 및 관리상태, 보험가액평가금액, 최대예상손실 크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최대예상손실(EML : Estimated Maximum Loss)은 하나의 단일 사고로서 예상되는 최대 손실의 크기로서 언더라이터가 보유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최종적인 적용요율은 위험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위험도의 크기와 그 당시 세계보험시장의 손해율에 따른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 4. 국내·외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은 주로 리스크 서베

이(Risk Survey)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고객 사업장 고유의 위험 분석을 통하여 잠재 사고 발생요인을 발굴하고 예상되는 사고 유형 및 사고의 심도, 즉 손해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언더라이팅 부서에 중요한 정보로 사용된다.

유럽이나 미국 등 보험 선진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관리활동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민간분야인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인 필요성에 따라 위험관리 조직을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제정한 보험사의 화재안전기준을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에서 법규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인 FM Global의 손실예방기준(Loss Prevention Data Sheet)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수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NFC(National Fire Code)에서도 상당 부분을 참고하고 있다.

미국의 Chubb사의 경우 보수적인 언더라이팅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의 위험관리 특징은 화재 등 전통적인 물적 위험의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물류, 도난, 제조물배상책임 등 특종위험분야까지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보험사는 대부분 자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보험가입 물건에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9년에 삼성화재(당시 안국화재)에서 최초로 위험관리팀을 조직하여 위험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도에 재무부의 위험관리제도 활성화 지침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들도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위험관리 기능 및 역할이 강조되면서 각 보험사들이 조직을 점차 확대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고, 그 이후로는 각 보험회사별 경영정책 및 상황에 따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거나 회사의 부속 연구소로서 운

영하는 등 보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언더라이팅 지원이며, 둘째는 방재활동을 통한 사고예방, 셋째는 고객에 대한 방재 서비스를 통한 영업지원이다.

**첫째, 언더라이팅 지원**은 해당 보험물건에 대한 정확한 언더라이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더라이터가 정확한 보유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확한 언더라이팅 정보는 현장실사 보고서에 기재되며, 최대예상손실의 크기, 가액평가, Top Risk 위치, 방화구획, 소방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다. 언더라이팅 지원은 보험회사에서 있어서 위험관리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방재활동을 통한 사고예방**은 현장실사시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여 각종의 안전관리 개선안을 도출하고 방재 기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보험사는 손해율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개선투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보험요율의 인하요인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경영진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방재 서비스를 통한 보험영업 지원**이다. 이는 방재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기술 자문, 세미나 개최, 고객을 위한 사고예방 정간물 발행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방재서비스의 제공은 기존 가입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규 보험가입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화재 및 피난 시물레이션, 화학물질 누출 폭발 시물레이션 등 각종 방재컨설팅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5.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위험관리 서비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사망 163명, 부상 63명) 및 서울시민회관 화재(사망 53명, 부상 76명)를 계기로 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73년 설립된 이래 전국에 산재된 2만여 건의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 측면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물건 또는 위험도가 높은 물건에 대해서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신해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운영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식이라고 하겠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원수보험회사에 크게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언더라이팅 정보의 제공**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는 매년 10개 원수사에 화재보험 특수건물할인 적용대상, 우량할인을 적용대상, 소화설비할인 적용대상에 대한 목록 및 할인율을 송부하고 있다. 현재 국내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언더라이팅 지원이며, 둘째는 방재활동을 통한 사고예방, 셋째는 고객에 대한 방재 서비스를 통한 영업지원이다.

보험시장이 구매자 위주의 소프트마켓(Soft Market)으로 요율경쟁이 치열하여 일단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요율할인 압력이 영업담당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공정한 할인율의 제시는 보험시장의 룰(Rule)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중소형 물건에 대한 사고예방활동의 대행이다.** 비록 원수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갖고 있으나 그 조직의 규모가 한정되고, 서비스 대상이 각 회사별로 수백여 개에 불과한 고액계약 물건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중소형 물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내 원수사의 위험관리 조직을 대표해서 각 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물건에 대한 위험관리 활동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위험관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업무의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 위험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방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미국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인 NFC(National Fire Code)를 비롯하여, SF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 핸드북, 인명안전코드(Life Safety Code) 핸드북 등을 번역하여 선진기술기준의 국내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KFS(Korea Fire Safety Standards ; 한국화재안전기준)을 만들고

있다. 또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인증업무 및 원수 보험사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원수보험회사는 필요한 언더라이팅 정보를 얻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미흡한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 6. 위험관리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언

현재 보험시장은 보험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로 인해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과거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에서 과학적 언더라이팅에 근거한 이익창출을 위한 실리 위주의 경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술의 발달 및 규모의 성장에 따라 대형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언더라이팅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언더라이팅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위험관리 업무의 활성화 및 기술 발전이 시급하다.

국내 위험관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업무의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 위험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원수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보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점검물건에 대한 상세한 언더라이팅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실무적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자료에서 각 손해보험회사의 언더라이

팅 부서에서 참고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물건에 적용되는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 및 우량물건 할인율만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언더라이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업종, 건물구조, 최대예상손실의 크기, Top Risk의 선정, 방화구획 상황, 현장 사진, 사업장 레이아웃(layout)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터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필요할 경우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인수할 때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물건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안전점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업계공통 전산망이 제공되어야 하며, 협회의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에도 언더라이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재 이외의 위험에 대한 서비스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손해보험업계의 매출비중에서 화재보험의 매출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난 2004년의 화재보험 매출 비율은 손해보험 총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패키지 보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의 매출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도 단순히 화재위험에 대한 정보보다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태동된 시기와 현재의 손해보험시장의 위험관리 니즈(Needs)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화재분야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위험과 특종보험의 위험을 포괄하는 종합위험관리 컨설팅 기관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및 방재컨설팅 기술의 개발·보급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각 보험회사별



로 상이한 최대예상손실 산정방법을 수렴하여 국내 보험업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예상손실 산정방법 등의 언더라이팅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업종별 주요 위험 및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등 전문화된 언더라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리소스(Resource)의 개발도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고객들이 요청하고 있는 각종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문 인력이 프로젝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원수사의 방재컨설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방재기술세미나 및 전문화된 방재교육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의 손해보험환경은 과학적 위험관리 체제의 확립을 통한 효과적 언더라이팅 기법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진정한 경쟁체제로 진입할 것이며 위험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각 손해보험사는 자체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화재보험협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가적인 손해보험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